

기고

성문주 국회사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는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는 많은 애벌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가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서로를 밟으며 어렵게 그곳에 이르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만한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하지 못한 채 나비가 되지 못한 많은 애벌레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교육도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더 높은 곳에 오르지만 하면 된다는 목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신념을 주입하면서 말이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라는 단기간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 교육, 의료 및 기대수명 등의 측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고 국제조사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행복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30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교육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와 긍정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개인에게 내재된 고유한 특성이 발현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대한민국이 더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먼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은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탐색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행복에 대한 정의 중 하나가 '삶에 대한 의미를 통해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이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지 탐색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며 과거와 현재의 경험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며 이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꾸려 가는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행복한 개인을 기르고 행복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고유한 강점을 지닌 평생학습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평생학습자로서 학생 개개인은 각자 다른 모습과 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누구나 평생에 걸쳐 계발해야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해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요과목에 대한 적성이 낮거나 입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수업방식에 흥미가 없어서 혹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환경적인 지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들이 가진 강점과 학습권에 대한 관심이 적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편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은 개인 및 국가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축적을 교육의 목표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한 인적자

본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성인기에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습득에 집중한다.

그러나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결과들은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 낙관성과 같은 심리자본과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상호호혜의 규범,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행복한 개인이 많아지고 행복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교육이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의 균형적인 축적에 기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철학적인 원리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및 고령화와 같은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삶의 질적 측면인 행복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져 갈 것이다. 더 행복한 개인과 사회가 되기 위하여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바들이 다소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교수 학습 전략,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교 문화 등에 녹아들 수 있다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社 說

확실한 부동산 공급대책 기대한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등 세제 강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돼 29일부터 발효됐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큰 틀이 완성된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발걸음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장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사이 정부와 여권에서 흘러나온 개발 대상 지역의 집값·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책이 설익어 선 안 되겠지만 가급적 조속한 대책 발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공급대책은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 도심에서 실수요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장기임대주택 확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땀질 식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당정은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정책의 큰 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적률을 높이거나 층고제한을 풀 경우 같은 면적에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 주택 물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서울에서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통념이나 일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몰카범죄' 주의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찰은 물론 지자체의 몰카 피해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몰카 범죄의 경우 시기나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의 영상 촬영기가 대중화되고 화질 및 무음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몰카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

리고 있는 실정이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이 쉽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올 여름 몰카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범죄 발생 및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

께 여름철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만약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상대방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위인 몰카 및 촬영물 유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직통 (062) 228-2580
기사제보 (062) 222-258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